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임을 위한 행진곡’, 김형석이 편곡하고 이은미가 부른다

〈3〉 음악으로 만나는 5·18

대중음악인들 5·18 40주년 참여
5·18 특별 다큐 18일 KBS1 방송안치환, ‘봄이 오면’ 8일 발표
오월음악, 유튜브서 상설음악회5·18민중항쟁행사위, 18일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컨테스트

김형석



이은미



안치환

80년 5월은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돼왔다. 특히 5·18을 소재로 한 노래들은 해마다 기념식, 기념행사 등에서 불리워지며 그날의 아픔을 전해왔다. 올해는 국내 대중 음악인들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곡을 선보이고, 지역에서는 상설음악회를 열어 5·18 정신을 계승하는 기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 넋을 기린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작곡가 김형석의 손을 거쳐 재탄생한다.

18일 오후 7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되

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임을 위한 노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다. 이번 방송은 작곡가 김형석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편곡을 맡은 다큐멘터리 전체 음악감독을 맡았고 가창은 가수 이은미가 맡아 기대를 불러 모은다.

김 씨는 1980년 광주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중학생이었던 그가 직접 보고 겪은 ‘5월 광주’는 공포와 분노의 기억이자 평생을 따라다니는 마음의 빛이었다. 그는 “기억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세월만

지나버린 느낌”이라며 “이번 작업을 통해 나 자신도 치유하고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300여 곡. 베테랑 작곡가인 그에게도 ‘임을 위한 행진곡’ 편곡작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처음 편곡 제안을 받았을 때 김형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김 씨는 편곡 방향에 대해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은 평화와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새롭게 탄생

할 곡은 원곡보다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봄이 오면/면 산의 바람/면 산의 구름/면 산의 꽃/모두 우리 님이어라/모두 우리 가슴이어라// 봄이 오면 면 별판의 불빛/면 별판의 땀/면 별판의 나무/모두 우리 아픔이어라/모두 우리 노래이어라’ (봄이 오면)

싱어송라이터 안치환이 광주의 오월 역사 40년을 기념하는 음원 ‘봄이 오면’을 8일 발표한다.

타이틀곡 ‘봄이 오면’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쓴 시인 김준태가 1984년 발표한 시 ‘봄이 오면’에 안치환이 멜로디를 붙여 만든 곡이다. 이 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해금 연주가 만나 오월 광주를 기억하는 이들의 아픔과 자랑스러움을 인상적인 사운드로 표현하고 있다.

안치환은 “해마다 오월이 오면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듬는 노래가 되길 바란다”고 새 노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노래패 ‘올림파’를 시작으로 1986년 노래모임 ‘새벽’,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거쳐 1989년 솔로 활동을 통해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마른 잎 다시 살아나’를 통해 대중적인 싱어송라이터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사단법인 오월음악은 5·18 정신계승을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를 5월 한달간 유튜브 채널 ‘오월의 노래’를 통해 선보이며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국내외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5·18 대표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 커버 컨테스트 공모를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생성지점’

한국화가 윤세영 작가의 ‘생성지점’ (Becoming space) 시리즈는 고정된 에너지가 아닌, 흐르고 변화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에너지가 대지 등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을 준다. 가시의 형상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생명을 이루는 에너지로 변화하는 지점을 시각화하는 그녀의 작업은 곁에 간 돌가루를 발라 세월의 흔적을 표현한 후 그곳에 시간의 흐름을 담는 것으로 구현됐다.

윤세영 작가의 10번째 개인전이 오는 15일까지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낯설고 푸른 생성 지점- Becoming Spa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윤작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생성지점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작가는 최근 광주시립미술관 공모에 선정돼 독일 뮌헨 문화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3개월간 빌라 발트베르타에 머물며 작업해 온 그는 매일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맥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호수의 푸른색을 접하며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고, 이번 전시에서 그 결과물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호수에서 영감을 받은 푸른색이 강렬하게 다가온다. 윤작가에게 푸른색은 양면성을 갖는다. 어둡고 절망적인 우울한 감정을 나타내거나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검푸른 심해의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어머니 양수처럼 생명을 품어내는 투명한 색이자, 희망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윤 작가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작품 테마인 생명과 소멸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의 의미와 푸른색이 잘 어울린다고 판단했고 그 속에 개인의 경험과 역사적 흐름과 변화의 에너지까지도 담아내려 했다.

전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윤 작가는 지금까지 9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제22회 광주미술상, 의재 허백련 레지던시 청년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상상의 경계들’을 주제로 열린 2018광주비엔날레에도 참여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참여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수온 소설가



김진영 시인

8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작가들에게 듣는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이상국·작가회의)는 오는 9일 온라인 낭독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낭독회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 작가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80년 광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광주항쟁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관객 낭독으로 진행되는 이번 낭독회는 작가회의가 주최하고 젊은작가포럼이 주관한다. 낭독회는 9일 오후 5시 작가회의 계정(https://bit.ly/34RTtyp)에서 약 60분 간 라이브로 진행된다. 참여 문인들은 권민경, 김진영, 김수온, 신현수, 안태운, 이범근, 이서하, 이소연, 이종민, 전영규, 조

울, 주민현, 최현우 등 모두 13명이다. 광주 출신으로는 201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수온 소설가와 2016년 현대시로 등단한 김진영 시인이 참여한다.

이들은 모두 80년 이후에 출생한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광주 이야기를 나누고 작품을 낭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기념 낭독이 사건 경험자의 시각과 증언을 토대로 진행되는 반면, 이번 낭독회는 국가적 비극인 5·18을 현재 세대의 관점으로 어떻게 의식하는지 보여준다.

김수온 작가는 ‘울’을 통해 “대가 끊긴 가문의 무덤처럼 보이는” 쓸쓸한 이미지를, 최현우 작가는



‘희백’을 통해 “시간에 불행을 섞어” 오늘을 사는 이의 아픔을 들려준다.

젊은작가포럼 위원장 김진영 시인은 “낭독회를 통해 광주항쟁 40주년을 기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젊은 작가들이 오래 기억해야만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의미를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작가회의, 9일 온라인 낭독회
김수온·김진영 등 작가 13명 참여

SINCE 1982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지정숙소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10번길 5 (볼로동)